

한·중 유의 한자어 이질화 경향과 인지적 사유 모형*

김 정 필**

<目次>

I. 서론	III. 한·중 유의 한자어 이질화의 인지적 사유 모형
II. 한·중 동형어 이질화의 인지적 배경	1. 형태소의 순역 대립 모형
1. 인지 초점의 이질화	2. 형태소의 동정 대립 모형
2. 지시 대상의 이질화	3. 형태소의 의미 전이 모형
3. 사유 방식의 이질화	IV. 결론
4. 문화 색채의 이질화	

I. 서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언제나 변화 과정에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원인이나 배경은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내재적으로 사회 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어휘의 다양화가 주로 일어났다면, 현대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접촉으로 인한 대외적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¹⁾는 비록 한국어에서는 한글로 기록

* 이 연구는 2024년도 경상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비록 현대중국어에서는 간체자로 바뀌어서 한자 자형은 같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한자 및 한자어가 지니는 기본적인 의미나 기능은 같다는 전제 하에서 접근한다.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자가 병용된다는 점에서 중국어와 그 의미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한국어에서는 본래 동형어(同形語)로써 유사(혹은 동일) 의미로 인식되었던 한자어의 의미 이질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한국인의 문해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70년대 국어 학자들의 주의를 끌었기도 하였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중 한자어 의미 이질화의 원인으로 역사적 변화 이외에, 한국어 고유 한자어 생성이나 일본식 한자어 유입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일본어 한자어를 삼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²⁾ 왜냐하면 이미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일본식 한자어는 바로 어휘로 수용되어 형태소로서의 한자는 일본식 의미를 지니고 그대로 사용되어, 통시적으로도 긴 변화 시간을 지닌 중국어 한자어와 한국어 한자어의 구조적 대립 및 인지적 사유와도 상호 대조적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철학의 양범주 분류에 기반하여 연구되는 언어의 양범주 분석³⁾을 한자어 어휘분석에 적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규명한 한·중 한자어의 이질화 자료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사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한·중 한자어의 이질화 배경이나 원인은 주로 외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경향이 짙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자어 이질화의 가장 근원적 원인을 두 언어가 지닌 인지 사유를 양범주 분석을 기반으로 이분법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석은 이질화의 경향성을 대조적 관점에서 그 경계를 살펴보고, 이후의 변화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2) 본래 일본어는 구문의 기본 구조가 한국어와 유사하기에, 한자어의 구조방식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쉽게 받아들인다. 다만 일본식 한자어는 중국어에서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 이후에 유입된 일본식 한자어는 서구 문화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어서 한국어나 중국어에서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3) 본래 양범주란 철학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현상을 연속량과 분리량으로 대비해서 살펴본 것에 기초하여, 언어학 분석에서는 ‘시간량’과 ‘공간량’의 대비를 통해 양범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있다.

먼저 통시적 관점에서 중국어 내부의 의미 이질화 경향을 다음의 세 가지 각도에서 그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는 고대 중국어에서 단음절어로 사용되던 한자어가 사회 문화의 발전에 따라 점차 ‘이음절화’ 되었고, 이때 형태소 자격이 된 한자의 의미 범주에 변화(축소 혹은 확대)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중국어가 지닌 언어의 복잡성을 들 수 있는데, 다양한 민족으로 인해 구성된 다양한 방언의 표준화 과정이나 구어적 변화 양상에서 이질화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모든 문헌을 문학의 각도에서 이해하는 중국어에서는 수사적, 운율적 효과 등 문체적 요구에 따른 의미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역시 한국어 한자어의 통시적 변화 또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한자어가 한국어로 유입되는 경로가 달랐을 수도 있으며, 또 그 과정에서 한국어의 수용 방식에 따른 의미 범위의 제약으로 이미 의미 파생의 전조가 있었다. 두 번째는 기존 연구에서 그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중국어의 구성 방식과 다른 한국어 고유 한자어의 생성 등을 들 수 있다. 두 나라 고대 왕조의 영멸(永滅)이나 근현대에 오면서 나타난 서로 다른 정치 체제로 인한 교류의 단절은 더 많은 한국어식 한자어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세 번째는 고대보다는 근대 이후의 상황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식 한자어 다량 유입은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이질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시적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한·중 간 의미 이질화된 한자어를 상호 대비하여 보면, 크게 ‘동형어(同形語)’의 이질화와 이형어(異形語)의 동질화 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동형의 한자가 어떻게 의미상의 이질화가 나타나고, 또 이형의 한자가 동형의 한자보다 더 유의어가 되어 대역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두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자어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동형동의어’가 ‘부분적 이의어’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 문화적·생활 풍습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보이나, 소논

문의 편폭으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문은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한자어의 형태 구조에서 드러나는 인지적 구조나 연구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교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특이점은 기존의 한·중 대조 분석이 주로 동의성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질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하는 점이며, 특히 한·중 언어의 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의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경계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문의 연구 방법은 먼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자료를 기반⁴⁾으로 정리하여, 이음절 한자어의 형태 구조를 ‘시간순서원칙(PTS)’을 기초로 한 어순 대립을 통해 접근한다. 아울러 이러한 양범주의 분석은 ‘동정(動靜), 긍정/부정, 대소(大小), 다소(多少) 등 각종 대립 관계를 기반으로 양범주 분석을 기반으로 도식화를 진행한다. 즉 한·중 이음절 동형어의 이질화 배경을 ‘시간간’의 각도에서 양화(量化)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두 언어 사이의 인지적 변화 양상을 도식화하여 그 경계를 설정한다. 그리하여 가장 변별력이 강한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서 역순구조의 동의어가 지니는 어순의 차이⁵⁾에서 출발하여, 두 언어 사이에 이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대조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의미의 대조 분석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한·중 간 ‘동소역순어’가 동의어가 되는 현상을 들 수

4) 한중 이질화의 대표적인 대립관계인 동소역순어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JIANG TINGTING·김정남(2014)은 총 129개 한자어, 왕신리(2016)에서는 1,055개, 송명(2018)은 《현대한어사전》을 기반으로 800쌍의 동소역순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김매(2007)는 ‘한중한자어비교사전(역락, 2006)의 7,500개 어휘 중에서 80개의 동소역순어를, 박경화(2006)의 경우에는 이형동의어 1,728개를 대상으로 한중 이형동의어를 비교하고 있다.

5) 이러한 인지 사유를 언급한 주장으로 채열(2008)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심재기(1989)의 주장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술목구조’의 단어가 한국어에 수용된 다음, 대중들이 자신의 고유 언어 의식과 한국어의 통사 규칙과 어순대로 이를 해석해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로 점점 ‘목적어+서술어’의 한국어식 ‘목술구조’의 한자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있는데, 이들 형태소의 의미구조를 ‘시간성(순행과 역행)’과 더불어 ‘동태성(운동성과 비운동성)’을 대비하여 살펴본다.⁶⁾ 더 나아가, 사건 방향과 어순의 방향성을 화자 중심의 인지 사유와 청자 중심의 인지 사유의 대립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 이질화 양상에서 이러한 대조적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II. 한·중 동형어 이질화의 인지적 배경

1. 인지 초점의 이질화

‘인지 초점의 이질화’란 동일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민족의 사유 방식과 언어 환경에 따라 지시 대상에 대한 인식 범주의 초점이 달라지면서 의미 범주에서 질적 또는 양적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고대 한자어가 한국어에 유입되던 시점에서 그 의미 범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거의 유사한 의미 범주를 지녔을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일한 한자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배경에는 사회·문화, 정치·경제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특히 근대 이후 양국 간 언어 교류의 단절 이후에 나타난 한자의 간체화에 따른 형태소의 통합, 중국어 기본 구조가 ‘술목구조’로 완전한 정착한 것 등도 한·중 의미 이질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물론 한국어와 중국어

6) 물론 대부분 한국 내부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고유한자어의 탄생 배경에 대해 역사적이거나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그들이 언급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한·중 ‘동형어’ 사이에서 ‘역순어’가 더 동의성을 지니는 현상은 시간성이 이질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자체의 통시적, 공시적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두 언어 사이의 서로 다른 인지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본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유의어를 기반으로, 필자가 본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다음 세 가지 각도에서 고찰해 보았다.

첫째, ‘시간의 일차원성’은 어휘가 표현하는 의미를 구조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한·중 간 한자어가 표현하는 의미 범주 사이에는 인지 초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어휘구조’ ‘AB’에서 한국어는 인지 초점이 선행형태소에 형성되는 경향성이 많은 것에 비해, 중국어에서는 후행형태소에 더 강한 인지 초점이 주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약속하다’로 표현되는 ‘약속(約束)’이라는 한자어는 ‘約’에 의미 초점이 강하게 작용하여, 결과보다는 행위의 배경이나 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중국어 ‘約束’은 ‘約’보다는 결과의 ‘束’에 초점이 맞춰져 ‘제한’ 혹은 ‘구속’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한국어 ‘약속하다’와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중국어 ‘約束’이 한국어에서는 ‘拘束’이나 ‘制限’으로 번역되는 이유이며, 오히려 한국어 ‘약속(約束)’은 중국어 ‘有約’으로 대역된다. 이처럼 한국어는 약속의 결과보다는 사전행위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인지 초점을 두고 있다면, 중국어는 약속을 맺은 이후의 결과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한·중 이음절 한자어의 형태소가 표현하는 인지 초점의 차이는 서로 다른 인지 사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속적인 의미 파생은 긍정/부정의 색채 의미의 대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어의 인지 사유는 배경이나 원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중국어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중 간 의미 범주의 완전히 전환은 최근 문해력 문제를 제공한 한자어 ‘심각(深刻)’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실 중국어에서 ‘深刻’은 ‘문제의 본질에 도달하다’ 또는 ‘깊은 인상을 받다’라는 내적 심리 상태를 묘사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상태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절박함’을 의미하여 이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 초점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問題很深刻’라고 번역하면 ‘문제가 인상적이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부정적 의미의 ‘심각하다’는 중국어로는 어휘를 대체하여 ‘問題很嚴重’으로 번역된다. 반대로 중국어 ‘印象深刻’은 한국어로 비교적 긍정의미의 ‘인상 깊다’로 번역해야 비로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된다. 이처럼 ‘深刻’이란 한자어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사건이 완성한 결과를 상황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감성적 인지 차이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

셋째, 이러한 인지 초점의 차이는 두 언어가 지닌 배경과 결과의 대조적 인지 사유는 의미가 표현하는 사건에 대한 기점과 종점 사이의 관계성 인식에서도 그 방향성 차이를 드러낸다. 즉 한국어는 사건 전개 이전의 인식이 공유되어 쌍방향 관계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어는 단방향적 결과 중심의 인식을 보인다. 예를 들어, ‘포기(拋棄)’는 한국어에서 ‘하러던 일’이라는 사전 의지나 배경이 강조되며, 결과보다 원인인 ‘拋’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강하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버리고 상관치 않다’는 행위 이후의 결과인 ‘棄’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피해(被害)’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어떤 사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라는 ‘당했다’라는 감정 인식이 강조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상해를 입거나 살해되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자어 전체의 의미확장 혹은 축소와 더불어 은유적 활용으로 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족(家族)’이라는 단어는 본래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형성된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가족의 본래 의미 범주인 ‘식구’ 개념을 넘어 회사나 단체 구성원,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는 은유적 확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중국어는 ‘親族’까지의 혈족 중심의 제한적 표현에 더 치중하고 있다. 또 다른 한국어에서의 은유적 파생은 고전적 의미를 여전히 반영하면서 의미 파생이 일어나면서, 의미 범주가 확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인(主人)’

의 경우, 본래 한국어에서는 ‘소유자’, ‘가장’, ‘남편’, ‘손님을 맞는 사람’, ‘고용자’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며, 심지어 유교적 사대주의나 남성 중심에서 나타난 ‘남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 이질화는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인지 방식과 사유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양국 언어 간의 깊은 의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외국어 교육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2. 지시 대상의 이질화

일반적으로 언어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어휘가 많이 생겨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의 보수성으로 인해 기존 어휘의 지칭 대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의 보수성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번역어에도 적용되며, 과학, 제도, 기술 수준이나 풍속, 관습 등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지시 대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문화의 발생지보다 문화가 수입된 지역에서의 보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서는 언어구조나 언어 환경이 다른데, 한국어 한자어의 문화적 보수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만 최근에는 국가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외국어가 두 나라에 유입되었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지시 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지칭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면서 한자어의 이질화는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질화의 경향 속에서, 현대한국어에서는 여전히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한자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이(轉移)’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과거 열차를 지칭하던 ‘汽車(汽车)’는 본래 ‘김이나 증기’를 뜻하는 ‘汽’를 통해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이동 수단을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대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어에서는 ‘汽’가 ‘휘발유’를 상징하게 되었고, ‘汽車’는 ‘자동차’, 즉 승용차를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汽車’가 여전히 연료만 바뀐 기존의 열차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현대에는 여러 객차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열차(列車)’라는 용어가 공통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汽車’ 대신 ‘火車’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한자어의 의미 전이는 두 언어 간의 서로 다른 인지 구조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과 증기기관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지만, 중국어에서는 ‘汽’의 의미가 ‘휘발유’로 전이되면서 증기를 이용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火’라는 중국어의 인지 구조에 부합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조어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중국어의 시각적 형상 중심의 사고는 동작이나 관계 중심의 한국어 인지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나무로 불을 지피며 물을 끓여 생긴 ‘汽’의 힘을 이용하는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면, ‘火車’의 ‘火’는 불이 붙은 형상을 묘사함으로써 중국어의 시각적 인지 구조를 잘 보여준다.

다시 유사한 사례로는, 한국어에서 ‘편지봉투’나 ‘서류봉투’ 등으로 쓰이는 ‘封套’의 경우, 의미확장이 한국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필자가 고찰한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봉투’는 ‘편지나 서류 따위를 넣기 위해 종이로 만든 주머니’로 정의되며, 중국어에서는 ‘书信或书籍的厚纸外套(편지나 서적을 담는 두꺼운 종이 재질의 외부 용기)’로 지칭되어 두 언어 모두 거의 동의어에 가깝다. 중국어에서는 ‘두꺼운 종이로 만든 용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한국어에서 의미확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百度’에서는 ‘封套的用途是将单页或样本插入封套内, 形成整合的一套文件材料’라고 정의되어, 한국어 ‘봉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봉투’가 단순히 외부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특히 돈)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의미확장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유 방식의 이질화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며, 언어 활동은 인간의 심리적 이미지를 외부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개별적 언어기호만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간의 심리가 각 구조성분 간의 관계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나 수학적 기호처럼 형상화된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기에, 동일 한자어라 하더라도 심리적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원래 동일 의미로 인식되던 한자어도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용되면서, 특히 은유적 형상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의미확장이나 축소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서 한자어의 의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다양한 외부 환경은 인지적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중 한자어 의미의 파생 양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의미 파생이 일어난 경우
- 2) 한국에서만 의미 파생이 일어난 경우
- 3) 중국에서만 의미 파생이 일어난 경우

위에서 제시한 의미의 파생 양상 중에서 ‘비유성 의미’는 대개 지시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지시 대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및 발화자의 정서에 따른 어감이나 수사적 기교 등 색채 의미의 차이가 어휘 의미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어에서는 방언과 표준어, 문체, 비속어 등 내포적 차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의미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신(生辰)’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생일’이라는 기본의미를 공유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생일을 높여 표현하는 존칭어로 사용되며, 중국어와는 다른 심리적 특성과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의미변화는 두 유의어 간의 의미 유사도가 매우 높아 이성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으며, 심리적 연상 작용에 따른 의미 전이(轉移)나 은유(隱喩)의 작용으로 지시 대상이 동일할 수도 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대상, 혹은 두려워 직접적으로 지시하기 어려운 대상, 기대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려는 완곡한 심리 작용을 통해 은유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형성된 은유가 대중의 공감을 얻으면, 모두가 공유하는 의미로 정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결실(結實)’은 본래 식물이 열매를 맺어 여문 상태 또는 그 열매를 의미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일의 결과가 잘 이루어짐’이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은유적 의미 전이가 일어났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건장하다’, ‘견고하다’ 등의 의미로 은유적 전이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시각적 또는 형상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수(洗手)’의 경우는 본래 ‘손을 씻다’는 의미였지만, 한국어에서는 얼굴을 씻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었고, 중국어에서는 ‘나쁜 짓에서 손을 떼다’는 의미로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사유 방식의 이질화 과정을 살펴보면, 초·중급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把握(과약)’도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보다 의미 파생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하다’나 ‘-되다’를 붙여 ‘(사람이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성질 따위를) 충분히 이해하여 확실하게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어, 대체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실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把握’이 ‘握’이나 ‘拿(잡다)’와 유의어로 ‘(추상적인 것을) 抓住(움켜쥐다)’라는 동사적 용법 외에도, 명사적 용법으로 ‘成功的可靠性(성공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没)有把握’ 형식으로 문맥을 형성한다. 한국어에서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在庫를 把握하다, 人員을 把握하다’처럼 사용되었을 경우, 중국어에서는 ‘查點’을 사용하여 ‘查點人數, 查點存貨’로 번역된다. 그런데 반대로 ‘查點人數, 查點存貨’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한국어 한자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국어

‘查點’이나 ‘存貨’에 대한 적절한 한국어 대역어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어에서만 혹은 중국어에서만 서로 다른 의미 파생이 일어나서, 상호 이질화가 서로 다른 범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한국어에서만 은유적 의미 파생이 일어난 경우로는 ‘내외(内外)’를 들 수 있다. 본래 ‘内外’는 공간의 안과 밖을 지칭하는 구조적 경계를 표시하는 말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중국어에서는 여전히 본래 의미로 그대로 사용된다. 이와 반대로, 중국어에서만 의미 파생이 일어난 경우로는 ‘후문(後門)’을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뒷문’을 의미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뒷구멍’, ‘부정한 수단’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4. 문화 색채의 이질화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성을 띠지만, 본래 중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대부분의 한자어에 ‘하다/되다’의 부가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때로는 두 표현이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되기에 한자어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 즉 한자의 본래 의미에 근거한 한자어의 쓰임을 구분하여, ‘-하다’를 붙이면 자연스럽지만 ‘-되다’를 붙이면 어색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돕다’라는 기본의미를 지닌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幫助(방조)’는 한국어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범죄나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로 부정 표현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정신적인 지원을 하는 것(替人出力、出主意或給以物質上、精神上的的支援)’으로 해석되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즉 한국어에서는 부정적 색채를 띠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긍정적 색채를 지녀 일상 회화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장선우(2013)는 문맥이 다를 뿐 결합 어휘나 구조는 같다고 보았지만, 이는 단순히 어휘의 기능적 특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색채 의미가 다른 어휘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

과한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언어를 상호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幫助’를 한국어의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하거나, 한국어 ‘幫助’를 중국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자어 ‘安置(안치)’ 역시 중국어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을 놓다(安放、安排、使人或事物有著落)’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시신이나 불상 등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을 모셔 둔다’는 의미로, 존경하거나 삼가는 등의 완곡한 색채를 지닌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영안실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안치한다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완곡을 떠나 회피의 감정 색채를 지니 문체색채 또한 제한적으로 사용되면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등 문맥의 안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 중국어에서 작업, 사업 등 일반적인 일로 공유되는 ‘工作(공작)’은 한국어에서 ‘공작 도구’처럼 수식어로 사용될 때는 일상생활의 노력이나 기술에 필요한 작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工作하다’처럼 서술어로 활용이 될 때는 특정 목적을 사전에 몰래 꾸민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반면 중국어에서 ‘工作’은 ‘從事體力或腦力勞動, 也泛指機器、工具受人操縱而發揮生產作用’으로 해석되어, 정신적·육체적 노동이나 기계 조작을 통한 생산활동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사이에는 의미의 파생이나 기능적 차이로 인해 어휘 사용에 따른 제한 범위가 넓어서, 기타 공기하는 성분 간 의미나 논리의 불일치 현상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案件(안건)’은 한국어에서는 ‘토의하거나 연구해야 할 사항’을 의미하지만, 중국어에서는 ‘有關訴訟和違法的事件(소송이나 위법과 관련한 사건)’으로 해석되어 형사·민사·행정·범죄 사건 등 법적 영역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중국어 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事件(사건)’이나 ‘議案(의안)’ 등 법적 환경에 맞는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또 하나의 특이한 사례는 한중 동형이의어 중 어휘 조합의 구조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安寧(안녕)’은 형태소 조합 그대로 ‘(사람이나 나라가)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다’는 의미를 지닌

다. 한국어에서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의 상투어로 사용되어, 주관적 ‘감정 색채’가 드러난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安寧’이 형용사로서 “秩序正常, 沒有騷擾” 또는 “心情安定; 寧靜”으로 해석되어, “創造一個和平、安寧的環境(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을 건설하다)” 등과 같이 객관적 상황에 대한 묘사에 주로 사용된다. 즉 한국어로는 ‘安寧’이 아닌 ‘안정(安定)’으로 대응하며, 중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安寧的世界, 安寧的環境, 安寧的心情, 安寧的情緒, 安寧的生活’ 등 또한 한국어로 ‘平和(로운)’, ‘便安(한)’, ‘安定(된)’, ‘快適(한)’ 등 완전히 다른 한자어로 대역되는 것 또한 바로 한·중 의미 이질화의 또 다른 방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Ⅲ. 한·중 유의어 한자어 이질화의 인지적 사유 모형

한·중 한자어의 의미 이질화 양상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동형어의 이질화이다. 비록 동형어 또한 유입 과정에서 의미 이질화가 진행된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유의어(同義語)’로 대역된다는 전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본래 중국어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통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어 고유 한자어의 탄생과 일본 한자어의 유입 등으로 인해 이미 ‘부분동형의어’화 되었다가 다시 ‘완전동형의어’로 변화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⁷⁾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우선 동형어를 ‘시간순서원칙(PTS)’에 기반하여

7) 본문에서는 한자어가 중국어에서 유입될 때의 한국어 한자어는 ‘동형동유의어’에 거의 가까웠으며,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용됨으로써 점차 ‘동형의어’로 변화되었다는 전제를 통해 접근한다. 사실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한자어가 본래 중국어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어 고유한자어의 탄생과 일본 한자어의 유입 등으로 이미 ‘부분동형의어’에서 거의 ‘완전동형의어’로 바뀌는 변화의 추세가 지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범주 분석을 진행하고, 자연 시간에 순행하는 어순의 형태 구조와 이에 반대되는 역순의 형태 구조를 대립적 각도에서 고찰한다.⁸⁾ 다시 공식적 관점에서 한·중 한자어의 대역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대역어가 될 수 있는 어휘의 의미 범주의 정보량을 이분법적 대립의 관점에서 계량하여 동의화(同義化) 또는 이의화(異義化) 가능성을 도식화 방식으로 접근한다.

1. 형태소의 순역(順逆) 대립 모형

한·중 한자어 이질화의 순역 대립은 시간성과 어순을 기반으로 접근한다. 사실 중국어에서는 동일 형태소를 지닌 어휘의 의미구조가 시간성 제약으로 인해 역순의 시간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거슬리는 역순 구조가 더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것을 필자가 그 원인을 두 언어의 기본 구조에서 나타나는 ‘술목’과 ‘목술’의 어순 대립에서 찾고자 한 이유이다.

먼저 중국어 어휘는 기본적으로 형태소의 의미구조가 사건 발생의 선후에 따라 구성하는 ‘순행’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두 형태소가 제시하

8) 이처럼 의미 범주의 양상이 복잡한 만큼 의미변화의 원인을 분류하는 기준도 학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대개 메이에(A. Meillet, 1905~1906)의 3분법(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성층)에서부터 니롭(K. Nyrop, 1913)과 기로(P. Guiraud, 1955)는 여기에 심리적 원인을 더하여 4분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만(Ullmann, 1962)은 니롭의 4분법에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모두 여섯 가지의 원인, 즉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외국어의 영향, 새로운 명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윤평현, 2008:193-195) 그리고 기존의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서는 ‘대역 관계(의사소통)’ 혹은 ‘사전 의미’를 기반으로 ‘동의(同義)’의 분류 기준을 ‘절대 동의’와 ‘상대 동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范琦慧(2002), 文蓮姬(2007) 등은 “한국 한자어와 중국 한자어의 기술적 의미와 표현적 의미가 서로 같으며, 거의 모든 문장에서 문자 그대로 번역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중 간 한자어 사이에 상호 대역이 가능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사전의미’가 같다고 해도 반드시 동의어라고 보기 어려운데, 한·중 대역은 대부분 일부 의미 항목이 같아서 대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는 동작의 시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그 역순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學習’을 들 수 있는데, ‘學’은 배우는 행위, ‘習’은 익히는 행위로, ‘習’은 ‘學’을 전제로 하므로 ‘習學’이라는 역순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習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전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어 한자어의 형성 과정에서는 여전히 화자의 주관성이 침투된 비논리적 역순 사고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A(學)	→ B(習) ← B(習)	한국어
A(學)	→ B(習) ↖ B(習)	중국어

물론 한국어의 관점에서는 ‘學’과 ‘習’은 배움 과정은 ‘學’에서 시작하지만, 한국어에서 ‘習學’이 존재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한·중 간 동형어의 이질화는 또 다른 ‘이형동어의’ 동질화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중국어 동사 ‘學習’의 가장 적합한 한국어 대역어로는 ‘學習(하다)’이 아닌 ‘工夫(하다)’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어에서 ‘學習하다’와 ‘공부하다’가 얼마만큼의 동의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두 개의 형태소의 의미 경계가 명확한 ‘學習’보다는 시간성의 과정을 중시하는 ‘工夫’가 한국어의 인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즉 ‘學習’이 지니는 행위는 두 개의 분리량으로 측정되며, ‘工夫’가 중국어에서 학습 행위가 아닌 단순히 ‘(여유)시간’으로 인지되는 이유와도 관계가 있다. 즉 중국어 언어 인지가 행위 하나하나를 분리량으로 측정한다면, 한국어의 언어 인지는 연속량의 시간성에 더 부합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립구조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순행과 역행의 대립적 인지 사유를 단순히 순환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언어 인지와 관련지어 살

떠날 수 있다. 예를 들면, ‘往來’와 ‘來往’은 한국어 사전에서도 ‘往來’는 ‘가고 오고 함’, ‘서로 교제함’, ‘오가는 비용’ 등으로 정의되며, ‘來往’은 ‘오고 감’, ‘서로 사귀어 오고 감’으로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비록 한국어 일상 회화에서는 여전히 순환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짙으며, 다만 ‘往來’가 ‘來往’보다 더 동태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화자가 기점이 되어 대상과의 거리감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과정이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來往’만 사용되고 ‘왕래’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어와는 달리 청자 중심의 인지 사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자를 기준으로 ‘往’과 ‘來’는 방향이 상반되는데, 특히 두 형태소의 조합된 이음절어에서 화자의 인지 초점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형태 구조의 분석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往來’는 화자 또는 화자와 가까운 곳에서 출발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來往’은 상대방 또는 원거리에서 출발해 화자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는 ‘往來’가 화자 중심, ‘來往’이 청자 중심의 인지 사유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往)	→ B(來)	→ C(往)
(화자→대상)한국어		중국어(대상→화자)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往來’와 ‘來往’의 시간성은 ‘오고 가는’ 혹은 ‘가고 오는’ 반복 행위가 지속됨으로, 일종의 순환 도식으로 인식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두 어휘의 의미 차이가 화자를 기준으로 어떠한 거리감을 보이는지 ‘원근 도식’으로도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한국어에서 상용하는 한자어 ‘離脫’과 중국어에서 상용하는 ‘脫離’의 시간성을 바탕으로 ‘離脫’은 ‘원→근’, ‘脫離’는 ‘근→원’의 순서로 형태소가 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에서는 두 한자어가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만, ‘離脫’이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서 역행 도식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반대로 ‘脫離’만 사용되어, 순행 구조에 더 부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命運’과 ‘運命’의 대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개 ‘命’은 타고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運’은 현재 혹은 미래에도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연 시간과 비례하는 ‘命運’을 ‘순행 구조’로 파악하고, 이에 반대구조의 ‘運命’은 자연 시간에 반비례하는 ‘역행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련의 경향성을 지닌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화자의 언어 심리가 순행 구조를 선호하는지, 역행 구조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신조어의 생성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순행 도식이 일반적인 이유를 현대 중국어가 기본 구조로 삼고 있는 ‘술목구조(SVO)’가 두 사건이 자연 시간 흐름과 정비례하여 연계되는 회화적 특성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역행 도식은 한국어처럼 ‘목술구조(OVS)’를 가진 언어에서 주로 나타나며, 비록 중국어에서 역행 구조를 구성된 경우는 강조의 용법 표지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그 방증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가 이질화되거나, ‘동소역순어’가 동의어가 되는 현상은 한국어의 ‘목술’ 구조와 중국어의 ‘술목’ 구조에서 비롯된 인지 사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형태 구조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귀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다른 예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한국어 사전에서 ‘分配’는 사물을 먼저 나눈 후 대상에게 주는 순서이며, ‘配分’은 먼저 대상이나 원칙을 정한 후 사물을 나누는 순서로 해석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한국어에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分配’는 술어로 활용되며 ‘-하다, -되다’가 부표제어로 수록되어 있고, ‘配分’은 명사로만 설명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2. 형태소의 동정(動靜) 대립 모형

앞에서는 한·중 ‘동소역순동의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에, 본 절에서는 ‘이소동의어’를 중심으로 한 의미 동질화 현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대개 부분적으로 동일 형태소를 지닌 한자어는 그 의미 범주 또한 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형태소를 포함하는 ‘부분이소’ 한자어⁹⁾를 중심으로 접근해 본다. 여기에서 ‘부분이소(部分異素)’란 두 음절어 중 하나의 형태소가 동일한 형태소(同素)를 공유한다는 의미이며, 구조방식에 따라 크게 AB-BC, AB-AC, AB-CA, AB-CB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AB-BC’ 유형의 예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어떤 일의 시작’을 나타내는 ‘개시(開始)’와 ‘시작(始作)’은 동일한 형태소 ‘始’를 공유하면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비록 한국어에서는 두 한자어가 유의어로 귀납하여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사전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설명된다는 점에서 인지 사유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개시(開始)’는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처음 시작함’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작(始作)’은 “어떤 일·행동·현상의 처음” 또는 “어떤 일의 행동이나 현상 따위가 처음으로 행해지거나 이루어짐”으로 그 의미의 초점이 ‘처음’과 ‘이루어짐’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형태소가 지닌 의미에 인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용이나 기능적 측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開始’는 시작 이전의 배경에서 시작 지점인 ‘始’에서 시간성이 해제되는 반면, ‘始作’은 시작 지점인 ‘始’ 이후 다음 행위로 이어지는 짧은 이동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간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다시 위의 ‘始作’과 구조방식은 같지만, 중국어와 한국어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名節(한국어)’과 ‘節日(중국어)’의 두 한자어가 대역되는 과정을 살

9) 물론 ‘전부이소동의어’도 있으나, 그 변별 방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펴보자. 여기에서 기준점이 되는 ‘節’은 한국어에서는 ‘마디’라는 표제어로 해석되지만, 본래 ‘마디’는 연속적인 시간 과정이 중간에서 중단되는 것으로, 시간의 일정 구간을 특정 지점에서 제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名節’은 “이름을 정하는 작업을 거쳐, 그 행위가 일정한 시점에서 단절되었음”을 동적 제어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반대로 ‘節日’은 매듭을 지은 이후에 정해진 그날을 의미하여 정태적인 사유를 표현한다. 이 역시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 한국어의 동태적 사유와 중국어의 정태적 사유가 서로 대비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A(開) —	B(始)	→ C(作)
A(名) →	B(節)	— C(日)

비록 두 한자어 형태 구조에서 보여주는 선, 후행 형태소의 위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어(밑줄 친 부분)가 동태성을 기반으로 중국어와 대립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AB-AC’ 유형의 예를 살펴보면, ‘逆順(역순)’과 ‘逆序(역서)’ 또한 정태와 동태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어로 ‘차례’ 또는 ‘순서’ 등으로 이해되는 두 한자어 중에서, 한국어에서는 동적 이동의 ‘順’을 선택하고 중국어에서는 정적 나열의 ‘序’를 선택하여 표현하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順’은 자연 시간의 원리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연속과정을 의미하며, ‘序’는 이미 일정한 기준으로 정해진 차례를 표현하는 정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역시 한·중 간 ‘動-靜’ 인지 사유의 대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A(逆)	— B(順)	한국어
	— C(序)	중국어

본문에서 필자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인지 사유를 ‘정태-동태’의 대립으로 본 것은 이러한 시간적 이질성이 한자어의 의미 범주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유추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도 ‘開始’는 ‘정태성’ 혹은 ‘약동태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교적 강한 동태성을 함유한 ‘始作’은 중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가 정한 한국어 ‘名節’은 강제적 행위성이 있으며, 중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靜-動’의 인지적 대립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형태소 의미 전이(轉移) 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형별 한자어의 대립 모형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한자)어’에서 일부 의미가 전이되거나 음절 장단을 통해 동소형태소의 의미 이질화가 나타남과 동시에 이소형태소의 의미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본다. 즉,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 중 어떤 의미 항목이 확대, 축소, 또는 전이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미 범주의 변화에 앞 절에서 제시한 조건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기준이 부여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新聞’은 여전히 ‘새로운 소식(듣기)’이라는 자구 해석에 머물러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인 ‘신문지’로 대상에 대한 의미 전이가 일어났다. ‘爱人’의 경우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지 사유에 따른 의미의 이질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또 주·객관성 인지 사유가 개입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 ‘사랑(愛)’은 당사자의 심리적 현상에 의존하여 주관성이 강하고 기준이 모호하게 나타난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혼인 여부라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爱人’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려는 인지 사유가 엿보인다. 즉, 중국어에서 사랑이라는 모호한 심리 현상을 결혼이라는 구체적 기준으로 객관화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감정의 양상에 따른 주관적 은유로 접근하는 한국어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서는 음절의 확장과 축소를 통해 의미 항목의 전이가 발생하며, 이때는 이질화와 동질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 단음절어 ‘告訴’와 한국어 다음절어 ‘고소하다(告訴)’는 ‘(법원에) 고소하다’의 의미로 동의성을 지니며, 반대로 중국어 ‘告訴’와 한국어 ‘알리다(告)’는 ‘알리다’의 의미로 상반된 동의성을 지니면서 상호 동질화와 이질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는 음절 대립을 통한 동화 모형으로, 주·객관 대립 사유와도 연계된다. 즉 ‘告訴’는 ‘알리다(告)’와 ‘호소하다(訴)’의 의미가 조합된 이음절 어휘로, 한국어에서는 감성적 ‘訴’가 의미의 중심으로 작용하여 감정적 요소가 강조된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呼訴’의 ‘訴’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어에서 ‘호텔’을 가리키는 ‘飯店’은 한국어에서 중국요리를 전문으로 파는 ‘食堂’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한국어에서 자구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밥집인 ‘飯店’이 ‘호텔’이 되었을까? 이것은 지시 대상의 ‘전이(轉移)’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종의 환유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여관이나 객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존재하던 ‘飯店’의 이름이 더 큰 지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숙박업소는 대개 객잔이라고 하여 음식점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현대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부속식당이 호텔 이름으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이러한 숙박업소인 ‘호텔’을 지시하는 것으로 ‘酒店’ 또한 ‘食堂’이 중심인 ‘飯店’과 달리 ‘술집’이 중심인 ‘酒店’으로 대상의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轉移’의 형태로 ‘小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動/靜 대비와도 연계된다. 즉 중국어에서는 외부 압박에 쪼그라든 심장의 구체적 형상으로 그려지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에 초점을 두어 ‘조심하다’로 해석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放心’은 ‘술목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마음을 내려놓다. 마음이 놓이다”처럼 수동적 행위에서 정태적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놓아 버리다”라는 심리적 행위에서 동태적으로 파악되어, 정태와 동태의 대립 관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한국어 사용자들이 한글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로 한자어에 대한 인지 감각이 더욱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자어 내부 형태소의 순행과 역행 구조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은 한국어에서는 한자어가 명사성 어휘로 인식되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물론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역순 구조가 한중 간 대역어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인지 사유는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어 및 유의어 중에서 그 의미가 이질화된 한자어를 수집하여, 그 변화의 기저에 있는 일련의 경향성을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한·중 간 다양한 유의어 중에서 대립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음절 한자어의 형태소를 중심으로 의미의 이질화 원인과 그 결과가 어떠한 인지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의미변화의 측면에서 이질화의 기준을 ‘인지 초점의 이질화’, ‘지시 대상의 이질화’, ‘사유 방식의 이질화’ 및 문화 색채의 이질화 등 네 개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시 구조방식의 측면에서 형태소의 조합 구조를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과 양범주 속성 분석에 근거하여, 한·중 간 의미의 이질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대립적 인지모형으로 나누어서 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즉 이질화 이후 두 형태소의 의미관계가 대립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어의 동태성과 중국어의 정태성 사유가 그 기저에 깔려 있으며, 이러한 한·중 간 한자어의 이질화 양상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지니면서 두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많은 양의 예를 들 수는 없어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두 언어 사이의 이질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다음과 같은 일정한 흐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한자어 이질화에는 상반적 인지 사유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형태소의 어순 구조 또한 시공간적 대립적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중 ‘동형한자어’와 ‘유의한자어’의 이질화는 단순히 표면적인 어순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형태소의 의미관계를 배열하는 방식 또한 근원적 대립 관계가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다음의 두 가지 인지 대립을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다.

1) 시간성(時間性)의 인지적 대립은 ‘동소역순어’의 형성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그 예로 ‘運命’과 ‘命運’의 역순구조 상호 동의성을 지니며, 의미의 흐름을 선천성(命)과 후천성(運)의 시간적 대립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것은 한국어는 미래의 변화 경향성을 강조하는 추론적/주관적 인지(역행 구조, 묵술)를 하는데 비해, 중국어는 사실에 기반한 시간의 순행을 따르는 객관적 인지(순행 구조, 술묵)를 채택함으로써 ‘동소역순동의어’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형성하고 있었다.

2) 동정성(動靜性) 인지 대립 (역순/역서): 동일한 의미 범주 내에서 한국어는 동태성(順)을, 중국어는 정태성(序)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것은 ‘부분이소동의어’ 양상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한·중 간의 ‘動-靜’ 인지 사유 차이가 부분 형태소 선택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근현대에 오면서 이러한 한자어 이질화가 심화하였으며, 한·중 한자어 의미의 이질화 경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언어 외적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그중에서 다음의 두 가지 원인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근현대기의 정치 체제(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를 낳았고, 이는 많은 용어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사용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 언어적 관습 및 차용의 영향: 한국어는 한자어가 외래어로서 명사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해 중국어에서 동사적 기능이 강한 한자어보다는 명사

적 관습에 부합하는 한자어가 주로 정착되었다. 또한, 일본의 한자 수용 및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중국어와는 구별되는 차용어가 언어 습관에 흡수된 것도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자어의 이질화 현상은 형태소의 의미 범주와 시간 인지라는 깊은 인지 사유의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어휘적 차이를 넘어선 언어 사용자들의 사유 방식 차이를 대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자는 표제어의 동일성만으로 의미의 동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형태가 다른 한자어가 내포하는 미세한 의미 차이와 더불어, 화자의 담화 의도에 따른 구문 변형과 의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정확한 의사소통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의미 이질화의 다양한 대립 관계는 명확한 경계로 드러나지는 않으며, 다만 그 경향성을 가지고 미래의 변화 양상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소논문의 제약으로 인해, 大/小, 多/少, 肯/否 등의 더 많은 대립 양상을 추가하여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다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지모형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다음절 한자어나 다양한 품사의 한자어에 확대 적용하여, 한·중 한자어 이질화의 보편적 원리와 특수성을 더욱 정교하게 탐색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 매, 《韓中 同素逆序語의 意味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어학전공, 2007.
- 김영주, 남명애(경희대학교), 〈한·중 이형동의 한자 어휘 대조 연구〉, 국어교육, 2008.

- 김정필, 〈한중 유의한자어의 어순구조와 동의성 비교분석〉, 《동북아문화 연구》, 동북아문화학회, 2015.
- 김홍진, 〈현대 한·중 한자어의 동형이의어·이형동의어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 남공양석, 《현대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한국학술정보, 2008.
- 남명애, 김영주 〈한·중 이형동의 한자 어휘 대조 연구〉, 《국어교육》(127), 한국어교육학회, 2008.
- 리우위, 《한·중 동형이의어의 비교 연구: 이자형 한자어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02.
- 박경아, 《韓中異形同義語 對照 分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2007.
- 박지인, 《한국 한자어를 통한 기초 중국어 어휘 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02.
- 송 명, 《한중 동소역서어 대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8.
- 왕신리, 《한·중동소한자어비교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6.
- 윤비취, 《한·중 동원관계 한자어 이질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문학과, 201.
- 이운재, 《인지언어학과 중국어 어순》, 역락, 2014.
- 鍾 潔, 《한국어와 중국어의 합성어 구조연구》, 역락, 2014.
- 채 열, 〈韓·中 字順倒置 漢字語 對照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 Jiang TingTing·김정남, 〈한·중 2음절 동소역서어 연구〉, 우리말글61, 2014.
-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 제1기, 1988.
- 李 明, 〈量词及量范畴再思考〉, 社科纵横(新理论版), 2013年9月.
- 李宇明, 《汉语量范畴研究》, 华中师范大学出版社, 2000.
- 李英哲, 〈空间顺序对汉语语序的制约〉, 《汉语学报》第1期, 2013.

劲 荣, 〈汉语量范畴研究的若干问题〉, 宁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7.

赵国军, 〈汉语量范畴研究综述〉, 贵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9.

崔希亮, 〈认知语言学: 研究范围和研究方法〉, 语言教学与研究, 200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商務印書館,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8年.

百度, <https://www.baidu.com/>

汉典, <https://www.zdic.net/2020>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morpheme-order structure of disyllabic Sino-Korean and Chinese words in depth, based on the principle of temporal unidimensionality and the oppositional cognitive schema.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heterogeneity of Sino-Korean words and the underlying cognitive differences. The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heterogeneity of Sino-Korean words lies in oppositional cognitive reasoning.

The heterogeneity of “homologous” and “similar” Sino-Korean words in Korea and China is not simply limited to superficial word order differences, but is deeply rooted in the way morpheme meanings are perceived and arranged—in other words, oppositional cognitive reasoning.

1) The cognitive opposition of temporality was explained through the formation of “allo-reverse synonyms.” For example, the semantic flow shown by the reversed opposition between “運命” (fate) and “命運”

(fate), was interpreted as a temporal opposition between innate (命) and acquired (運). This contrast, with Korean employing an inferential/subjective cognition (retrograde structure, mok-sul) that emphasizes future change tendencies, creates the background for the formation of “allo-reverse synonyms.” Chinese, on the other hand, adopts an objective cognition (progressive structure, sulmok) that follows the factual, forward flow of time.

2) Cognitive opposition of dynamic and static (dynamic and static) (reverse/reverse): Within the same semantic category, Korean chose dynamic (順) while Chinese chose static (序), resulting in a pattern of “partial iso-synonyms.” This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reasoning behind “dynamic and static”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fluence the selection of partial morphemes.

This study analyzed the morpheme-order structure of disyllabic Sino-Korean and Chinese words in depth, based on the principle of temporal unidimensionality and the oppositional cognitive schema.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heterogeneity of Sino-Korean words and the underlying cognitive differences.

Key Words : 시간성(temporality), 공간성(spatiality), 인지사유(cognitive reasoning), 동정대립(The opposition between dynamic and static), 역순구조(reverse structure)